'지역의 미래, 과학기술로 활짝 연다' GIST, 2024 광주특구 과학기술사업화 페어 개최

- 22일(금)부터 3일간 광주 특구 산학연관의 성과물 전시회와 경진대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 국가전략기술과 특구 특화기술에 대한 사업화 현안 발굴 및 기술 노하우 확산 기대



▲ '2024 광주특구 과학기술 사업화 페어' 홍보 포스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광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2024 광주 특구 과학기술사업화 페어'를 3월 22일(금)부터 24일(일)까지 3일간 GIST 오룡관과 AI 대학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광주 특구의 산학연관 혁신 주체들이 국가전략기술과 특구 특화기술에 대한 사업화 현안을 발굴하고 기술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GIST가 작년부터 수행해 온 광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 중 하나인 '혁신 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성과물 전시회와 더불어 경진대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2일(금) 개회식을 시작으로 ▲광주특구 지역 혁신 성과 전시회(오룡관 1층, 22-24일) ▲AI기반 UN SDGs 달성과 전략을 주제로 한 포럼(오룡관 1층, 22일) ▲AI+X 성과공유 세미나(오룡관 103호, 22일) ▲광주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토론회 (오룡관 101호, 22일) ▲AI4Good 해커톤 경진대회(AI대학원, 23-24일)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가전략기술 지역 특화분야 관련 우수기술 활용 혁신 제품들을 전시·공유하고자 **광주특구 내 대학(원), 정출연, 전문연 및 창업(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금)에 열리는 'AI기반 UN SDGs 달성과 전략 포럼'에서는 AI기술 적용 및 활용을 통한 DX와 기후변화, 중소기업 R&D 글로벌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발제와 함께 이태준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용우 상무관(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기술혁신), 이승유연구위원(KDI 국제정책대학원 OGI Lab), 박문구 전무(삼정KPMG) 등 산학연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또한 22일 오후에는 광주 특구의 주력산업인 AI기술과 모빌리티, 광융합·반도체, 바이오 기술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사업 연계성과 공유 및 **향후 고도화되는 지역산업의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AI+X 성과공유 세미나가 오룡관 103호에서 열리며**, 광주특구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한 일환으로 김동남 대표((주)내비온)와 김정훈 변호사(콕스특허) 발제와 함께 광주특구 내 출연연, 전문연 등 **실무자들의 협력 방안토론회가 오룡관 101호에서 진행**된다.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목표로 AI 기술을 활용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내 AI 전문 인력(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AI 솔루션 구현 기회의 장으로 마련된 'AI4Good 해커톤 경진대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GIST AI대학원 TED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임기철 GIST 총장은 "광주특구의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이 국가전 략기술과 특구 특화기술에 대한 사업화 현안을 발굴하고 기술 노하우 확산을 통해 광주 지역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 마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